

#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 2010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오현정**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

**신경아** 한양대학교 창의성과인터랙션연구소 연구조교수\*\*\*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혹은 연령주의 현상을 야기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제로서의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탐색해 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 방법

2010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1 일까지의 8개 종합 일간지 속 노인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한 1만6713건의 기사 중 체계적 무작위 표집 방법을 통해 선정한 총 1567건의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 결과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 중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인 반면,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이었다. 노인 관련 기사들은 최근의 기사일수록 단편 프레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그중 노인의 건강과 성격에 관한 기사들이 주로 단편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었다. 노인의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가 남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성별이 명시되지 않거나 남녀 노인 모두가 등장하는 뉴스 기사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남성 노인은 건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여성 노인에 관한 기사는 성격적 특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단편 프레임으로 작성된 기사에서 주로 성별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성별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성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았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관한 국내 언론의 최근 보도 경향을 확인하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KEYWORDS** 노인, 뉴스 기사, 고정관념 구성 모델, 뉴스 프레임, 내용 분석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1538).

\*\* First Author: janeoh82@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chloe563@gmail.com

## 서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7%에 육박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5).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천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이며(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Affairs, 2016), 고령화의 속도는 전 세계의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5). 따라서 법,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사회의 구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적으로는 고용, 의료, 연금 등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 및 개편이 요구되며(Ahn & Lim, 2015), 경제적으로도 시니어 소비자로서의 노인의 역할 재고와 함께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그 외에도 노인 스스로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Ahn & Lim, 2015).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내 성인들은 노인에게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며(Kwon, Noh, & Jang, 2013), 노인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종종 무시나 기피를 경험한다(Lee, Choi, Kim, & Cho, 2010). 노인에게 대한 타 세대의 사회적 차별과 거부는 세대 갈등과 노인 고용 기피 등 다양한 쟁점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이지

만, 노인 차별이나 노인에게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구들은 그 현상을 규명하는 데 그칠 뿐(Kim, 2003; Lee, 2009; Kim, Kim, & Min, 2012; Park & Yi, 2001),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에게 대한 타 세대의 인식적 편차 혹은 차별은 학계에서 연령주의(ageism) 또는 낙인(stigma) 현상으로 논의된다. 낙인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불명예스러운 표식을 지칭하며(Goffman, 1963), 연령주의는 그중 노화 또는 노인에게 한정된 편차의 과정을 일컫는다(Butler, 1980). 현대 사회에서 노인 낙인과 연령주의 현상은 특정 사회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 의무의 확대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 상실 등 고령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 산물이다.

노인에게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과 연령주의는 결과적으로 고령 인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거부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확산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정관념 구성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 Fiske, Cuddy, Glick, & Xu, 2002)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차별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그 집단이 보유한 속성에 대한 타 집단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은 능력(competence)과 성격(warmth)에 대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 능력은 낮게 지각되지만 성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Cuddy & Fiske, 2002). 이 모델은 특정 집단에 대해 부각되는 특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해당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관념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Aboud, 1988). 미디어는 고정관념 형성의 원천이 되는 언어와 이미지를 생산하고 고정관념을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Cheong, Song, Yoon, & Shim,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학습의 기제 중 노인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뉴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뉴스가 노인의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연령주의와 노인 낙인화에 기여하고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태도와 차별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와 노인 이미지의 관련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이며(Gerbner, 1980), 최근의 연구들도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 현대 사회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ang, 2018; Park, Chung, & An, 2018).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노인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노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특성인 건강, 능력, 그리고 성격 중 어떠한 특성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개별 특성이 어떠한 관점에서 기술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 낙인화를 심화시키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령 친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언론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노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기사들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에 관한 기사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에 대한 올바른 보도 자료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이론적 배경

### 국내 사회의 노인 인식

노인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 노인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은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과거부터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 공경을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하는 동양 사회가 서양 사회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Ng, 2002). 하지만 최근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태도가 더욱 부정적이며, 특히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보다 심각하다고 나타났다(North & Fiske, 2015).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동양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개인주의 사회보다 고령자 인식이 더욱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인식은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국내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반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었다(e.g., Kwon et al., 2013). 이윤경(Lee, 2007)의 연구에서 비노인층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상태, 지적 능력,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청년층은 노인의 건강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반면, 중장년층은 노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심리적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종종 발견되는 반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Choi & Shim, 2014; Jung & Kim, 2013). 반대로 노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Hong, 2009)의 경우, 노인들은 스스로를 지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는 노쇠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달라진다. 노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 경향을 시기별로 분석한 정진경(Jung,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

는 200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단편적이지 않고 사회적 맥락이나 노인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2014년에 실시된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따르면 2009년보다 2017년도의 노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노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경제 활동을 하는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sup>2)</sup>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일하는 노인을 미디어가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세대 간 노인 이미지의 차이와 시대에 따른 변화는 노인 이미지가 절대적이거나 일관적이기 보다는 시기, 사회 계층, 미디어 표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노인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고착화하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과 그에 대한 논조의 역할에 주목하기로 한다.

1) 국민경제자문위원회 (2014). 복지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및 분석 연구.

2)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 낙인과 연령주의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낙인 혹은 연령주의라는 개념적 틀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낙인은 사회적 오명이나 불명예를 유발하는 특성과 그것을 보유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업신여김이나 차별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Goffman, 1963). 낙인화된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인간적 본성에 흠이 있거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의미의 단서로 작용한다(Crocker, Major, & Steele, 1998).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특성을 보유한 집단은 그에 대한 집단적 명칭을 부여 받고(labeling), 부여한 명칭과 부정적 특성에 대한 강한 연상 고리를 형성하며, 사회적 고립, 차별, 지위 하락의 과정을 거쳐 한 사회에서 낙인화된다(Major & O'Brien, 2005).

고프만(Goffman, 1963)은 낙인을 그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낙인은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로 인한 낙인으로 질병을 보유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대상에 대한 낙인이다. 두 번째 낙인은 행동적 습성이나 심리적 성격을 낙인화하는 것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낙인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상대를 낙인화하는 것으로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 구성원에 대한 낙인이다. 노인에 대한 낙인은 노인이라는 고령 집단에 대한 타 세대의 낙인이기 때문에 집단 낙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낙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노인에 대한 낙인이 그들의 노쇠함이나 장애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이는 집단 낙인이기보다는 노인이 가진 신체적 장애로 인한 낙인일 수 있다. 반대로 노인의 권위적이거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낙인이라면 심리에 기인한 낙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노인에 대한 낙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요양시설에 거주하게 하거나 고용에서의 차별,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Graham et al., 2003) 낙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령주의(ageism)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과정이다(Butler, 1980). 국내에서는 노인 낙인보다는 연령주의라는 통합적 현상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Kim, 2009, 2012; Kim, 2011).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현상을 단순히 노인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이 아닌 법, 제도, 환경 등 구조적 측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다시 태도, 행동, 환경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태도 차원의 경우, 고령자 집단(the aged), 혹은 나이가 많은 대상(old age), 그리고 나이를 먹는 과정(aging process)에 대한 타 세대 혹은 노인 스스로의 부정적 태도를 설명하며, 행동 차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발현되는(타 세대의) 차별적 행동을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정책 및 제도적 관습이 환경 차원에 해당한다.

연령주의와 노인 낙인 현상은 개념의 포괄성 혹은 내포하는 함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

본적으로는 노인 집단에 대한 그 시대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주의와 노인 낙인 현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인 뉴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고 뉴스 기사에서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과 그에 대한 논조 및 뉴스 프레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미디어와 노인 이미지

미디어 속 노인의 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투영해서 보여 주는 거울과 같다. 또한 미디어는 특정 노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노인의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고착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노인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현 사회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미디어가 어떠한 노인상을 사회적으로 정형화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연령에 근거한 고정관념에서 유발되는데, 특히 노인이 보유한 질병(illness), 노인 집단의 무능력(incompetence), 그리고 노인의 문제와 자신의 무관함(irrelevance)을 지각할수록 그 태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심화된다고 본다(North & Fiske, 2015). 즉, 신체적 약자라는 노인의 물리적 특성과 노인들만이 보유한 성격이나 행동 양식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발생하며, 이러한 태도는 노인 집단이 자신과는 무관한 외집단(out-group)이라는 인식을 통해 강화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정관념 구성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크게 성격(warmth)과 능력(competenc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노인은 지역과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성격적으로 따뜻하지만 능력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으로 여겨진다(Cuddy, Norton, & Fiske, 2005; Cuddy et al., 2009). 이러한 무능력의 지각은 노인 집단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 혹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집단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혹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Fiske et al., 2002).

또한 고정관념 구성 모델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따뜻함과 무능력의 지각은 동정심(pity)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Cuddy, Norton, & Fiske, 2005). 동정심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감정의 표현일 수 있으나 이러한 감정의 지속적인 표현은 상대에게 무력감을 주며,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의존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Nussbaum, Pitts, Huber, Krieger, & Ohs, 2005).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컨대, 아버와 동료들(Erber & Prager, 1999; Erber, Prager, Williams, & Caiola, 1996)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의 기억력 부진에 대해서 노력과 집중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인의 기억력 부진에 대해서는 지적 능력의 결여 또는 기억력 감퇴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즉각적으로 바로잡히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o, Erber, & Szuchman, 1999).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종 노인 고용에 대한 선입견을 야기하곤 하는데, 실제로 많은 종류의 업무에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동일한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McCann & Giles, 2002), 그 성과가 젊은 직장인들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Cuddy & Fiske, 2002; Posthuma & Campion, 2009).

노인 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노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예컨대, 광고 속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광고 속 노인이 대체로 건강하지 않고 품위가 떨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Kim, 2007).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 속의 노인들 또한 경제적 무능, 신체적 노쇠, 부정적 외모 단서 등과 함께 주로 노출되고 있었다(Kim & Park, 2014). 온라인 뉴스도 노인을 질병을 앓거나 초라하고 지저분한 외모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된 기사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Choi, 2008; Kim, 2003).

미디어와 노인 이미지의 관련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Gerbner, 1980)는 TV 시청량이 많을수록 노인을 부정적이고 비호의적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는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채리 외(Park et al., 2018)의 최근 연구에서도 미디어가 노인에 대한 차별을 많이 묘사할수록 노인에 대한 낙인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청년층(18~44

세)과 중년층(45~64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강한나(Kang, 2018)의 연구 또한 미디어 이용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타 세대의 노인 인식과 태도는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나 소통 경험, 노인 관련 교육이나 봉사활동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e.g., Choi & Shim, 2014; Kwon et al., 2013; Lee, 2007). 하지만 노인과 직접 대화하거나 상호작용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대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공된 노인 이미지보다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실적 묘사와 노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박석철(Park, 2008)은 뉴스 보도가 노인 이미지를 노쇠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하며 의존성이 강한 대상으로 재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노인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특성을 언론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뉴스 기사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국내 뉴스 미디어에서 등장한 노인 관련 기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뉴스 미디어에서 노인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고정관념 구성 모델의 주요 변인인 능력

및 성격과 더불어 기존의 노인 인식 연구에서 널리 다루어진 신체적 건강(이하 건강)의 측면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부가적인 함의를 제공하였다. 노인의 건강 악화 및 질병은 기존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낙인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North & Fiske, 2015), 노인의 능력적 요인이나 심리적 특성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어져 왔다(Choi & Shim, 2014; Jung & Kim, 2013; Kwon, 2013; Lee, 2007; Park,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을 능력, 성격, 건강의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지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은 2010년도~2017년도 간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연구문제 2:**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따라 기사의 논조(긍정, 중립, 부정)가 달라지는가?

### 노인에 관한 뉴스 프레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노인이 가진 부정적 속성에 대한 지각에서 출발하지만, 그 과정에는 개개인마다 복잡한 사회심리적 과정이 개입한다. 특히, 집단 자존감(group-based esteem)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자신의 집단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outsider)으로 규정하며, 노인 문제를 자신과는 관련 없는 외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Hagestad & Uhlenberg, 2005).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뉴스 미디어가 노인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프레임(frame)은 정보를 처리하는 해석의 스키마로서 개인이 특정 문제를 사적으로 정의하고 구성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Entman, 1993; Goffman, 1963). 그중에서도 특정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관련 통계 등의 배경 정보를 좀 더 깊이 있게 기술하는 테마 프레임(thematic frame)과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인물의 사적인 경험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단편 프레임(episodic frame)은 기존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에서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적 틀 중 하나이다(Iyengar, 1990).

단편 프레임은 테마 프레임보다 뉴스 기사에 관한 수용자의 정보 처리가 수월하고 몰입도를 높여 주며(Iyengar, 1990), 기사에 등장하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혀 주고(Gross, 2008), 기사 속 주장에 대한 저항을 줄여 주기도 한다(Slater & Rouner, 2002). 그러나 단편 프레임은 특정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관련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를 사건에 휘말린 개인의 책임 혹은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경향이 크다(Iyengar, 1990).

빈곤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효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이엔가(Iyengar, 1990)는 뉴스가 가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도하는 양상에 따라 사람들이 해



당 이슈를 받아들이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먼저 뉴스가 노인 빈곤 문제를 통계적 정보와 빈곤의 원인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할 경우(테마 프레임), 이를 접한 사람들은 노인 빈곤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지한다. 반면, 노인 빈곤을 뉴스가 가난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단편적으로 기술할 경우(단편 프레임), 사람들은 빈곤의 책임을 당사자에 부과하고 빈곤이라는 문제 역시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지하였다.

노인 부양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최근 연구(Springer & Harwood 2014)는 노인의 퇴직에 관한 단편 프레임 기사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테마 프레임 기사를 읽은 수용자들보다 노인 부양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단편 프레임 속 노인의 이미지가 사회적 고정관념과 유사할수록 사람들은 퇴직에 대한 노인 개개인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는 노인 부양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졌다. 즉, 노인 문제를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뉴스에 등장하는 노인의 모습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반영할수록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단편 프레임 기사에 많이 노출될 경우, 노인을 점점 타자화하고 노인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노인 개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사건을 단순 미치광이에 의한 사건으로 묘사할 경우,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며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사사로운 문제이지만, 이것을 가족

환경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룰 경우 정신질환자 범죄는 더 이상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탈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에서 노인 이슈를 노인 개인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련 정책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신문 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한 오세숙 외(Oh, 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노인의 여가 활동을 연결 지어 보도함에 있어 단편(episodic) 프레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 또한 노인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어떠한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 뉴스 프레임(단편, 테마)은 2010년도~2017년도 간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연구문제 4:**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 뉴스 프레임(단편, 테마)은 노인의 주요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5:**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 뉴스 프레임(단편, 테마)에 따라 기사의 논조(긍정, 중립, 부정)가 달라지는가?

## 뉴스 기사 속 노인의 성별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노인의 특성, 기사의 논조, 그리고 뉴스 프레임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서베이 중심의 기존 연구들(Han, 2003; Kwon et al., 2013)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상이함을 보고하며, 미디어를 내용 분석한 연구들 또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주로 묘사되는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g., Kim, 2007, 2009).

초기의 한국 드라마나 미디어 속 여성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로 등장해 왔는데, 공통적으로는 고부 간 갈등의 주체, 결혼 전후 여성의 변화, 결혼한 여성의 고뇌, 부부 갈등 혹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피해자로 나타났다(Hong, 1998). 비록 여성에게 점차적으로 다양한 역할과 캐릭터가 부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청자들에게 TV 속 여성 노인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이며, '나이 든' 여성들은 기부와 희생, 지나치게 강인하며 가부장성을 모방하는 존재, 배려와 보호의 대상, 무지하거나 미디어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약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Kang, 2012). 김숙과 박주연(Kim & Park, 2013)은 드라마 속 노인이 주로 대가족의 일원이거나 독거노인으로 양극화된 상황을 재현하며 남성 노인의 가부장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미디어는 대체적으로 여성 노인에게 좀 더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를 투영해 왔다(Kim,

2007). 그러나 저자가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인과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학술지 색인을 검색한 결과, 뉴스 미디어 속 남녀 노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사한 시각의 연구들은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거나(Kwak, Park, & Kim, 2008) 여성 노인에 치중해서 진행되어(Kang, 2012), 성별에 따른 뉴스 기사의 차이를 균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뉴스 기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주장되어 온 미디어 속 남녀 노인의 이미지 차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 역할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뉴스 미디어가 노인의 성별에 따라 지배적으로 묘사하는 특성이나 양상이 상이한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노인의 성역할을 유연하게 묘사함으로써 가치관, 역할, 생활양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인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켜 왔으며, 다양한 노인 역할의 묘사는 일본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확장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Kim,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기사 속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 뉴스 프레임, 그리고 기사의 논조가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6:**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7:**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단편, 테마)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8:**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논조(긍정, 부정, 중립)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 연구 방법

###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는 미디어가 노인을 낙인화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노인의 능력과 성격 중 어떠한 측면을 반영하는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고령', '시니어'를 키워드로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를 통해 8개의 종합 일간지<sup>3)</sup> 속 노인 관련 뉴스 기사들을 추출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뉴스 기사는 쟁점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특히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며, 고령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2020 고령 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

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다.<sup>4)</sup> 검색 결과, 총 1만8321건의 뉴스 기사가 검색되었으며, 그중 중복된 기사 1608건을 제외한 1만 6713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10%의 표본 기사 수집을 위해 전체 기사를 날짜순으로 나열한 후 체계적 무작위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매 8번째 기사를 수집하였다. 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사(e.g., 고령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기사, 위안부 관련 기사 등), 사진만으로 구성된 기사, 원래의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기사를 제외한 총 1567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자료의 코딩

기사의 분석은 2명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대학생에 의해 수행되었다. 두 코더들은 먼저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10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코딩 체계(coding scheme)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각 기사를 코딩하였다. 합치도가 낮은 항목들과 설명이 불분명한 유목들의 코딩 체계는 연구자와의 면대면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정교화하였다. 그리고 무작위로 재선정된 100건의 기사를 2차로 코딩하여 코더 간 합치도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코더 간 합치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번의 사전 코딩과 논의를 거친 후 코더들은 본격적으로 표본 기사들을 코딩하였다. 분석 유목

3)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8개 언론사 속 뉴스 기사를 검색하였다.

4) 노인복지과(2010). 서울시 고령 사회 마스터플랜. 출처: <http://afc.welfare.seoul.kr/afc/about/progress.action>

**Table 1.** Frequency information of the news articles

	Category	Frequency	Percent
Year	2010	158	10.1
	2011	158	10.1
	2012	171	10.9
	2013	243	15.5
	2014	189	12.1
	2015	334	21.3
	2016	217	13.8
	2017	97	6.2
Press Company	Kyunghyang Shinmun	264	16.8
	Kukmin Ilbo	220	14.0
	Naeil Shinmun	53	3.4
	Munhwa Ilbo	125	8.0
	Seoul Shinmun	269	17.2
	Segye Ilbo	357	22.8
	Hankyoreh	130	8.3
	Hankook Ilbo	149	9.5
Total		1,567	100.0

에 대한 코더들의 최종 신뢰도는 Krippendorff's Alpha(Kalpha) 계수를 통해 검증되었다. 원래는 230건의 기사들이 중복 코딩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련 없는 기사들을 제외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160건의 기사가 신뢰도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sup>5)</sup>

### 분석 유목

분석 유목은 1) 기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지배적 특

성, 2) 기사의 논조, 3) 기사의 뉴스 프레임, 4) 기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로 분류하였다. 기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지배적 특성은 건강, 능력, 성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은 노인의 노화로 인한 건강, 질병,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장애에 대한 내용에 관한 기사가 해당되었으며, 능력적 특성은 노인의 물리적 능력, 정신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노인의 업무 수행 역량이나 역할, 경제적 지

5) 특정 인물을 다루고 있거나(e.g.,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에 즈음하여), 고령이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e.g., [프로농구] '최고령' LG 이창수 코트선 최고의 조연), 위안부 관련 기사를 다루는 경우, 그리고 사진만으로 구성된 포토 기사는 제외되었다.

**Table 2.** Definition and descriptive information of each variable

Variable	Category	Coding Guideline	N	%
Elderly Characteristics	Physical Health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focused in the article.	477	35.5
	Competence		422	31.4
	Personality		444	33.1
Tone of Description	Positive	The dominant tone of describing older adults in the article.	552	35.2
	Negative		619	39.5
	Neutral		396	25.3
News Frame	Episodic Frame	A news article that focuses on a single event of episode.	715	45.6
	Thematic Frame	A news article that covers a certain theme about older adults or provides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n certain event.	852	54.4
Gender	Male Elderly	The gender of the older adult depicted or reported in the news article.	179	11.4
	Female Elderly		445	28.4
	All / Not Specified		943	60.2

위에 관한 내용이 기사에 드러난 경우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격적 특성은 노인의 성격 및 행동 양식과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기사가 해당되었다. 특별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기사는 (0)없음으로 코딩하였다(Kalpa = .72). 기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은 1) 여성, 2) 남성, 3) 모두 혹은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Kalpa = .83), 기사의 뉴스 프레임은 1) 노인에게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술하는 기사를 '단편 프레임'으로, 2)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 없이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통계 등의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를 '테마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Kalpa = .76). 기사의 대표적 논조는 1) 긍정, 2) 부정, 3) 중립으로 분류되었다(Kalpa = .78). 긍정적 기사는 노인의 지혜나 잠재력, 긍정

적 성격,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노인을 묘사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기사들이 해당되었으며, 부정적 기사는 노인의 능력적 결함, 부정적 성격, 건강의 쇠약과 같은 노화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주로 다룬 기사들이 해당되었다. 중립적 기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거나 특정 논조를 가지지 않는 기사들이 포함되었다. <Table 2>에는 개별 항목별 유무를 포함한 코딩 가이드라인과 빈도가 정리되어 있다.

## 연구 결과

###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 부각되는 노인의 특성

<연구문제 1>은 국내의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지배적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특성의 유목별로 유의미한 빈도수를 확보하기 위해 2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뉴스 미디어에 보도된 노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 능력, 성격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 관련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은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12.34, p > .05$ ).

<연구문제 2>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미디어가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논조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 속 노인의 특성에 따른 기사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표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건강: 47.8%, 능력: 48.8%)가 많은 반면,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51.4%)가 많았다( $\chi^2 = 61.31, p < .001$ ). 실제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죽음과 건강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노인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원서 20개월 보낸다”, “일주일 지나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노인 당뇨에 저혈당 생기면 치매 발생 3배 높아”와 같은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노인의 성격과 관련된 긍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동물농장 교통사고 당한 오봉이 업고 다니는 할머니”, “전 재산 베풀고 시신까지 기부한 ‘우동 할머니’와 같이 노인들의 선행이나, “요가 배워 굶은 등허리 편 86세 할머니”, “87세 할머니, 인생을 담아 랩을 하다”와 같이 노인의 도

**Table 3.** Dominant characteristics of elderly reported in news articles

Characteristics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chi^2$
Health	99 (36.3%)	125 (33.8%)	167 (37.9%)	86 (33.2%)	12.34 (n.s.)
Competence	66 (24.2%)	127 (34.3%)	141 (32.0%)	88 (34.0%)	
Personality	108 (39.6%)	118 (31.9%)	133 (30.2%)	85 (32.8%)	
Total	273 (100.0%)	370 (100.0%)	441 (100.0%)	259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4.** Tone of argument on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 news articles

Characteristics	Positive	Negative	Neutral	$\chi^2$
Health	135 (28.3%)	228 (47.8%)	114 (23.9%)	61.31***
Competence	135 (32.0%)	206 (48.8%)	81 (19.2%)	
Personality	228 (51.4%)	149 (33.6%)	67 (15.1%)	

\* $p < .05$ . \*\* $p < .01$ . \*\*\* $p < .001$ .

전정신을 다룬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노인에 관한 온라인 뉴스 기사 속 프레임

〈연구문제 3〉은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은 무엇이며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Table 5〉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에 대한 뉴스 기사의 지배적 프레임은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단편 프레임의 비중이 증가하고 테마 프레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chi^2 = 12.34, p > .05$ ). 2010~2011년에는 전체의 39.2%에 불과하였던 단편 프레임 기사가 2016~2017년에는 절반이 넘는 52.9%까지로 증가하였다. 특히, 단편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들의 경우 “일

주일 지나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화재경보기 작동 모른척해 독거노인 사망케 한 아파트 경비원 재판에”와 같이 노인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의 단면을 제시하면서 이를 고령 사회의 현실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치매 할머니들이 웨이터로 활약하는 日 음식점”, “11년째 홀로 동굴 파는 할아버지의 꿈은”, “광주 114세 할머니도 투표”와 같이 실제 노인들의 삶의 일면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문제 4〉는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이 기사가 다루는 노인의 지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 속 노인의 특성에 따른 프레임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체적으로는 단편 프레임보다 테마 프레임을 더 활용하고 있었으나, 노인의 능력과 관련된 기사에서 테

**Table 5.** Dominant news frame in news articles about older adults

Frame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chi^2$
Episodic	124 (39.2%)	170 (41.1%)	255 (48.8%)	166 (52.9%)	17.37**
Thematic	192 (60.8%)	244 (58.9%)	268 (51.2%)	148 (47.1%)	
Total	316 (100.0%)	414 (100.0%)	523 (100.0%)	314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6.** News frames across different elderly characteristics in news articles

Characteristics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chi^2$
Health	228 (47.8%)	249 (52.2%)	21.15***
Competence	143 (33.9%)	279 (66.1%)	
Personality	207 (46.6%)	237 (53.4%)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7.** Tone of description across different news frames in news articles

Tone of Description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chi^2$
Positive	247 (34.5%)	305 (35.8%)	11.91***
Negative	259 (36.2%)	360 (42.3%)	
Neutral	209 (29.2%)	187 (21.9%)	
Total	715 (100%)	852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프레임(66.1%)이 특히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었다( $\chi^2(2) = 21.15, p < .001$ ). 가령, 노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단편 프레임’을 적용한 기사들의 경우 “전북 완주 창포마을, 으뜸 농촌 체험마을 선정 할머니 다듬이 연주단 명성”, “자살 생각하던 만화가 김노인 ‘재기의 꿈’”, “배가 고파서 스팸 5개 훔친 노인 훈방 조치한 경찰관”과 같이 노인 관련 미담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노인 문제들을 파편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테마 프레임’의 경우, “노인 되면 소비 37% 급감한다”, “빈곤과 고립감이 범죄로 ... 작년 노인범죄 9.1% 늘었다”, “노인 1인 가구 25년 새 13배 늘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실태 등을 통계적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문제 5〉는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에 따라 기사의 논조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Table 7〉에 나와 있듯이 테마 프레임의 경우 부정적(42.3%)이거나 긍정적(35.8%)인 논조를 가진 기사가 많은 반면, 단편 프레임의 경우

테마 프레임보다 논조가 중립적인 경우(29.2% vs. 21.9%)가 비교적 많았다( $\chi^2(2) = 11.91, p < .001$ ). 긍정적 논조로 쓰인 단편 프레임 기사들의 경우, “기업은행,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에 2년째 ‘사랑의 밥차’”, “태백산맥 필사 80살 할머니 ‘한문 지도사’ 최고령 합격”과 같이 노인 지원이나 고령 노인의 도전과 같은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버스 경로석 양보 안하는 청년 집단폭행한 노인들”과 같이 특정 사건이나 범죄를 노인의 성격과 연관시켜 상세하게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부정적 논조로 작성된 테마 프레임 기사들은 “해결되지 않는 농어촌 고령화 빈곤”, “노인 자살률 1위, 개선책 마련 시급”,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10년간 4배 늘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관련 문제를 객관적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었다.

### 뉴스 미디어 속 노인의 성별

〈연구문제 6〉은 국내의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다



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요약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에게 대해서는 건강(41.8%)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여성은 성격(48.4%)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다. 능력의 경우, 기사에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42.9%)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chi^2(4) = 144.25, p < .001$ ). 남성 노인의 건강을 다루는 경우는 “턱걸이 18개 성공하는 84세 괴력 할아버지 화제”, “에어부산, 비상슬라이드 작동 70대 노인 실수 정황 혼방”, “세계 최고령 남성 일본인 112세로 별세”와 같이 고령임에도 건강한 신체를 보유한 사례나 반대로 인지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수를 하거나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남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을 다루는 경우에는 “홀로 사는 할

아버지들, 요리로 세상과 소통하다”, “80대 노인, 평생 모은 1억 원 전남대에 기부”, “자고 일어나니 내가 스타! ‘박카스 할아버지’ 광용근”과 같이 남성 노인들의 미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을 다룬 기사들은 “사라지는 제주어로 동시집 낸 할머니 시인”, “충북 영동 패셔니스타 ‘대구 할머니’”, “움막농성 할머니 칼바람에 떨덜 ‘송전탑 세우면 안고 죽을 것’”, “28살이 내 남자친구? 92세 할머니 경찰에 ‘버럭’” 등과 같은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사 속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억척스럽거나 고집스러운 성격적 특성이 부각되었다. 능력적 특성에서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기사들의 경우 “노인 교통사고 피해 가해 더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여성 노인·남성 노인 소득 격차 10%p 줄어” 등과 같이 노

**Table 8.** Dominant characteristics of elderly between different genders depicted in news articles

Characteristics	Male Elderly	Female Elderly	All / Not specified	$\chi^2$
Heath	74 (41.8%)	153 (35.9%)	250 (33.8%)	144.25***
Competence	30 (16.9%)	67(15.7%)	325 (43.9%)	
Personality	73 (41.2%)	206 (48.4%)	165 (22.3%)	
Total	179 (100%)	445 (100%)	943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9.** News frames of different genders depicted in news articles

Gender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chi^2$
Male Elderly	111 (62.0%)	68 (38.0%)	55.67***
Female Elderly	244 (54.8%)	201 (45.2%)	
All / Not Specified	360 (38.2%)	583 (61.8%)	

\* $p < .05$ . \*\* $p < .01$ . \*\*\* $p < .001$ .

인 관련 통계 수치나 제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7〉은 국내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기사의 뉴스 프레임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성별이 남성 혹은 여성 노인으로 구체화 되는 경우에는 단편 프레임(남성: 62.0%, 여성: 54.8%)이, 성별이 드러나지 않거나 남녀가 모두 등장하는 경우에는 테마 프레임(61.8%)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chi^2(2) = 55.67, p < .001$ ). 가령 단편 프레임의 경우, “홀로 임대 주택 살며 씹짓돈 모아 장학금 1000만 원 기탁한 할머니”, “어버이날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돼”, “알록달록 무지개 정장 ‘멋쟁이 할아버지’”, “집과 무덤을 ‘물물교환’ 83세 할아버지의 사연”과 같이 주로 노인에 대한 미담, 이슈, 사건 등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화하기 때문에 노인 성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테마 프레임의 경우, “다 같은 독감백신? 노인 전용은 따로 있다.”, “영양실조 환자 60% 노인, 3년 새 21% 증가”, “65세 이상 노인 건보 진료비 지출 급증”과 같이 노인 관련 통계

자료나 사회 현상 등을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문제 8〉은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논조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 속 노인의 성별에 따른 논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10〉 참조), 노인의 성별이 언급된 경우에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남성: 43.6%, 여성: 44.5%)가 많았으며, 노인의 성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41.3%)인 기사가 많았다( $\chi^2(4) = 42.37, p < .001$ ).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에는 기사의 논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긍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30년간 폐품 모아 이웃 도운 황화익 할머니 서울시 복지대상”, “붓글씨 즐기는 88세 할아버지 EBS ‘장수가족, 건강의 비밀’”과 같이 노인의 미담이나 노년의 일상적 모습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묘사하는 반면, 부정적 기사들은 “인지장애 노인 우울증 조심해야”,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포기 왜?”, “일하는 노인 41% OECD 2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노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특정 사례보다는 통계적 자료를 활용해 현황을 객관적

**Table 10.** Tone of description across different genders of older adults depicted in news articles

Tone of Description	Male Elderly	Female Elderly	All / Not Specified	$\chi^2$
Positive	78 (43.6%)	198 (44.5%)	276 (29.3%)	42.37***
Negative	66 (36.9%)	164 (36.9%)	389 (41.3%)	
Neutral	35 (19.6%)	83 (18.7%)	278 (29.5%)	
Total	179 (100%)	445 (100%)	943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으로 기술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논의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서 기술되는 노인 이미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과 관련된 국내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기사 속에 드러난 노인의 지배적인 특성, 뉴스 프레임, 기사의 논조, 그리고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 등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뉴스 기사 속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은 건강, 성격, 그리고 능력적 특성이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인 반면,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의 타 세대가 노인의 능력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심리적이거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Choi & Shim, 2014; Jung & Kim, 2013; Kwon et al., 2013)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미혜(Kim, 2003)는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자들이 노인에 관한 교육이나 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언론사의 지침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전형적인 노인 이미지에 치중된 기사들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은 건강 문제나 범죄와 같이 사건에 치중된 기사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긍정적 논조의 기사의 경우 노인들의 선행을 다루거나 새로운 도전에 관한 기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2000년대 초기에 뉴스 기사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습적으로 작성된 기사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언론이 기존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착화하는데 기여할 뿐 고령 친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발전적이고 사회 통합적 시각을 제공해야 하는 당위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나 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실증 연구와 언론사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룬 기존의 해외 문헌들(e.g., Cuddy & Fiske, 2002; Erber & Prager, 1999; Erber et al., 1996; Posthuma & Campion, 2009)은 공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심화는 노인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해당 문제를 노력 혹은 집중력과 같은 의지의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동일한 문제라도 대상이 노인일 경우에는 이를 능력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 속성으로 연결시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문제도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노화로 인한 능력의 쇠퇴를 원인으로 볼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하기보다는 문제로부터 당사자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없애고자 할 가능

성이 높다. 즉, 미디어로 인해 노인의 능력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고착화될수록 노인의 역할 분리 담론이 강화되고 이는 노인 집단의 역할 상실 및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한편, 노인에 관련된 기사들은 최근의 기사일수록 단편 프레임을 활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편 프레임 기사들은 노인사 고나 자살과 같은 노인 문제를 사회 구조나 정책과 같은 근본적 논의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뉴스 기사가 테마 프레임보다는 단편 프레임을 이용하여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오세숙 외(Oh et al., 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를 분석한 김미혜(2003)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인터넷 기사들이 미래의 노인상이나, 노인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사화하는 데 그친다고 언급한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단편 프레임이 테마 프레임보다 노인 관련 문제를 사회적으로 축소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노인 집단 내부의 문제로 여길 수 있다는 아이엔가(Iyengar, 1990)의 주장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특정 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기술하는 단편 프레임은 특정 집단에게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기사의 내용이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반영할수록 관련 집단에 대한 타 집단의 태도를 악화시킨다는 결과의 연구도 있었다

(Springer & Harwood, 2015). 지난 2017년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 관련 이슈들이 연이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사회의 단면을 제시하는 단편 프레임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고,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고령 사회를 위한 정책 집행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뉴스 프레임에 따라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위의 추론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노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건강과 성격에 관한 기사들이 능력에 관한 기사들보다 단편 프레임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능력에 대한 기사는 다른 기사들보다 테마 프레임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인의 건강이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노인 개인의 관리나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반면, 능력에 대한 것은 노인 고용, 복지, 부양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의 기사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은 노인의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통계나 보고서 자료 등을 인용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테마 프레임으로 구성된 기사들은 부정적 논조의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가 남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성별이 명시되지 않거나 남녀 노인 모두가 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노인

은 건강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여성 노인에 관한 기사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었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다룬 국내 문헌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 노인들은 기질적으로는 따뜻하여 남성 노인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여 주로 돌봄과 부양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Han, 2003; Kwon et al., 2013). 이러한 편견은 뉴스 기사들이 여성 노인의 능력이나 건강 등 여성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성격이나 행동 양식과 같은 기질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심화되어 왔다(Kang, 2012; Kim, 2007). 본 연구에서도 여성 노인의 건강은 남성 노인에 비해 쇠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 노인에게 노인과 여성이라는 다중의 고정관념을 중첩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뉴스 프레임의 경우, 단편 프레임으로 작성된 기사에서 주로 성별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테마 프레임은 남녀 노인 모두가 등장하거나 성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편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과 관련된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남녀 모두 특정 성별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성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았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기사의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많지만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 기술하는 경우, 기사의 톤이 부정적인 어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나 태도는 따뜻하고 긍정적이지만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집단 정체성에 대해 기술할 경우 사회적 인식이 냉담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후속 연구는 좀 더 경험적으로 노인 개인과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뉴스 기사의 프레임과 논조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테마 프레임보다 단편 프레임의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노인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 프레임은 노인의 삶이나 노인 문제의 일면만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관련 보도에서는 노인 혐오나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단편 프레임보다는 테마 프레임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노인 사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연령주의 인식에 주목하고, 이를 야기하는 하나의 기제로서의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탐색해 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그 결과, 뉴스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인의 특성과 그에 대한 기사의 논조, 노인에 대해 기술하는 프레임과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 등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어 가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내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 친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노인 세대를 타자화하여 기술하고 노인에 관한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관계없이 기사의 논조를 균형적으로 보도하고, 노인 문제를 노인 집단만의 문제로 단편화하거나 타자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조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전형적 보도양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다양한 노인상을 발굴하고, 기존의 성역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유연한 시각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을 다룸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성별과 연령에 기인한 이중적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론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집단화하여 부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고 냉담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포용적이고 세대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 개개인의 개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노인상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좀 더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고령 친화 사회의 구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보다 구체적인 기사 작성의 실무적 지침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건강, 능력, 성격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해당 분류는 낙인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개념적 연구와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한 분류이지만, 개별 특성이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컨대, 노인의 쇠약함이 무능력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기술되어질 때, 이는 건강과 능력 모두를 포괄하는 기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사의 프레임을 단편 프레임과 테마 프레임으로 분류함에 있어서도 단편 프레임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현상의 단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노인의 실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테마 프레임의 경우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통계나 연구 자료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한 개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기사의 구성에 있어 복합적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가 주로 강조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유목을 코딩하였으나, 동일한 기사가 코더의 판단

에 따라 다른 유목으로 코딩되어질 수도 있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시기(2010~2017년)와 기준(2년 단위)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같은 중요한 시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나 이 또한 연구자의 판단으로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시기적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분석의 결과 또한 상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8개의 언론사 역시 빅카인즈의 뉴스 검색 서비스가 제공하는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포괄성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뉴스 기사 자체만을 맥락 없이 분석하였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기사 주제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과 같은 배경 요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기자 유형, 정보원 등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는 뉴스 기사가 다루는 노인의 특성, 기사 작성 프레임, 논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요인과 언론사, 기자, 정보원 등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 기사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상당 부분을 기존 문헌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향후 노인에게 관한 뉴스 기사의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실제로 뉴스 기사를 읽은 후에 나타나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관찰한다면 노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뉴스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boud, F. (1988). *Children and prejudice*. Cambridge: Basil Blackwell.
- Ahn, J. K., & Lim, J. M. (2015).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local policies for entry into the elderly society.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13100114178&re\\_search\\_id=B552531-201600015](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13100114178&re_search_id=B552531-201600015)
- Butler, R. N.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8-11.
- Cheong, Y. G., Song, H.-J., Yoon, T.-I., & Shim, H. (2011). The effect of media stereotyping of immigrants on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2), 405-427.
- Choi, M.-J., & Shim, C.-S. (2014). The study of awareness and images of the elderly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8*(2), 299-306.
- Choi, H. J. (2008). Rediscovery of 'future elderly' as a productive agent. *Newspaper and Broadcasting, 59*, 105-136.
- Crocker, J.,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504-553). Boston: McGraw-Hill.
- Cuddy, A. J., & Fiske, S. T. (2002). Doddering but dear: Process, content, and function in stereotyping of older persons. In T.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Vol. 3) (pp. 3-26). Cambridge, MA: MIT Press.
- Cuddy, A. J., et al. (2009). Stereotype content model across cultures: Towards universal similarities and some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1), 1-33.
- Cuddy, A. J.,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67-28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rber, J. T., & Prager, I. G. (1999). Age and memory: Perceptions of forgetful young and older adults. In T. M. Hess & F. Blanchard-Fields (Eds.), *Social cognition and aging* (pp. 197-217).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Erber, J. T., Prager, I. G., Williams, M., & Caiola, M. A. (1996). Age and forgetfulness: Confidence in ability and attribution for memory failures. *Psychology and Aging, 11*(2), 310-315.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 Gerbner, G., Gross, L., Signorielli, N., & Morgan, M. (1980).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37-47.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spoiled identity*. New York, NY: Prentice Hall.
- Graham, N., et al. (2003). Reduc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 technical consensus stat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8), 670-678.
- Gross, K. (2008). Framing persuasive appeals: Episodic and thematic framing, emotional response, and policy opinion. *Political Psychology, 29*(2), 169-192.
- Guo, X., Erber, J. T., & Szuchman, L. T. (1999). Age and forgetfulness: Can stereotypes be modified?. *Educational Gerontology, 25*(5), 457-466.



- Hagestad, G. O., & Uhlenberg, P. (2005). The social separation of old and young: A root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43-360.
- Han, J-R. (2003).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 181-194.
- Hong, H-B. (2009). Exploratory Study, "Elderly image perceived by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4*, 327-343.
- Hong, S-K. (1998). A woman in a family relationship that TV dramas reproduc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Annual Conference*, 181-197.
- Iyengar, S. (1990).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The case of poverty. *Political Behavior, 12*(1), 19-40.
- Jung, S. H., & Kim, E. H. (2013).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6), 1071-1077.
- Jung, J. K. (2015). Image of older people in Korean academic researches during 1990-2015: A systematic review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4), 1115-1134.
- Kang, J-S. (2012). A Study of media representation and discrimination for elderly women: FGI with university students.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4*(1), 111-138.
- Kang, H. (2018). Effects of media use and social norms toward older adults on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3), 873-884.
- Kim, E. (2017). How media makes the elderly into welcoming citizens in the aged socie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3), 157-188.
- Kim, J-H. (2009). The change in the status of older people in Korea in terms of ageism. *Korean Society and History, 82*, 361-391.
- Kim, J-H. (2012). Ageism survey: A report on instrument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53-75.
- Kim, J. Y., Kim M. H., & Min K. H. (201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 (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6*(4), 89-106.
- Kim, M. H. (2003). Analysis on image of the elderly in "Ohmynews" as Internet newspap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1), 13-30.
- Kim, S-Y. (2007). An analysis of the elderly images in aging society: Based on the text analysis of 4 television advertisements. *Family and Culture, 19*(2), 139-169.
- Kim, S-Y. (2009). A Study of the elderly image in Korean and Japanese television advertisem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3*(5), 133-169.
- Kim, S., & Park, J-Y. (2014). A Study on the images of elderly people in news magazine, documentary, life style information TV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2), 281-330.
- Kim, W. (2003). An exploratory study on ageism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21-35.
- Kim, W. (2011). A study o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 505-526.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Aging friendly industry market trend. Retrieved from <http://future.fki.or.kr/issue/future/list.aspx>
- Kwak, S., Park, S. H., & Kim E. K. (2008). A Study on the gendered perceptions and lived-experiences of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4*(4), 141-174.

- Kwon, M. S., Noh, G-Y., & Jang, J. H. (2013). University student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633-646.
- Lee., J. Y. (2009). A Study on older adult's meaning of ageism.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4), 1205-1232.
- Lee, S-Y., Choi, I-H., & Kim I-S. (2010). *The generation conflict felt by old men and women and suggestion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e, Y-K. (2007). Images of the elderly held by non-elderl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2), 1-22.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McCann, R., & Giles, H. (2002). Ageism in the workplace: A communication perspective. In T.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163-199). Cambridge, MA: MIT Press.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Affairs. (2016).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Retrieved from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Ng, S. H. (2002). Will families support their elders? Answers from across cultures.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295-309). Cambridge, MA: MIT Press
- North, M. S., & Fiske, S. T. (2015). Modern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in the aging world: A cross-cultural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1(5), 993-1021.
- Nussbaum, J. F., Pitts, M. J., Huber, F. N., Krieger, J. L. R., & Ohs, J. E. (2005). Ageism and ageist language across the life span: Intimate relationships and non-intimate interac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87-305.
- Oh, S-S., Kim, J-S., & Shin, K-L. (2012). Frame analysis of newspaper's coverage related to leisure of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7(2), 25-37.
- Park, S. C. (2008). Aging society broadcasting program direction. *Conference paper at Joint academic seminar presentation materials for Korea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Park, C., Chung, S., & An, S. (2018). Factors affecting stigma against older adults : A comparison of two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1), 385-416.
- Park, K. R., & Yi, Y. S. (2001).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adolescents and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6), 221-239.
- Posthuma, R. A., & Campion, M. A. (2009). Age stereotypes in the workplace: Common stereotypes, moderator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Management*, 35(1), 158-188.
-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15). Direction of regional polic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entry into the aged society.
- Slater, M. D., & Rouner, D. (2002). Entertainment-education and elaboration likelihood: Understanding the processing of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 Theory*, 12(2), 173-191.
- Song, Y-J. (2012). Breaking age barriers: Adornment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Korean Society*, 13(2), 83-111.
- Springer, S. A., & Harwood, J. (2015). The influence of episodic and thematic frames on policy and group attitudes: Mediational analy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2), 226-244.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5). An aging world:

2015. Retrieved from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16/demo/p95-16-1.pdf>

Weiner, B. (1993). On sin versus sickness: A theory of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social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48(9), 957-965.

최초 투고일 2019년 01월 31일

논문 심사일 2019년 03월 19일

논문 수정일 2019년 06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9년 07월 11일

# How does Korean News Media Cover News Stories of Older Adults?

## A Content Analysis of Korean News Articles Published After 2010\*

**Hyun Jung O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Kyung Ah Shi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Creativity & Interaction, Hanyang University\*\*\*

###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role of news media in promoting elderly stigma and ageism in Korean society.

### Method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567 randomly selected online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10 and June 2017.

###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the majority of the news articles published on health and competence of older adults focused more on the negative aspects, whereas the news articles published about the personality of the elderly maintained a positive tone while describing the elderly people. Recently published articles, as well as the articles about health and personality of the older people, were more likely to use the episodic frame than the thematic frame. News articles about male elderly focused more on their health condition whereas those about female elderly focused more on their personalities. With regard to both the genders, the tone of news articles was more positive when a specific gender was stated in the story. However, the articles maintained a negative viewpoint when the information about gender was not detailed in the story.

###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elderly research based on th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8021538).

\*\* First Author: janeoh82@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chloe563@gmail.com

systematic observation about the recent tendency of news reports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elderly. This study also indirectly examined the impact of news media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ocial stigma and ageism against the elderly population in our society.

**KEYWORDS** Older Adults, Stereotype Content Model, News Media, News Frame, Content Analysis